

1. 나는 구원 받았나? 내가 구원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지?

지난 글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에서 구원의 확신은 타인의 질문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과 함께하시는 성령의 일하심 위에 피어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의 질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주는 질문을 한번 해보려 합니다. “나는 구원받았나? 나는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하지?”라고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궁금하듯이 자신이 구원 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어떤 이단종파에서는 구원받을 사람이 특정한 숫자(144,000)로 정해져 그 안에 들어와야 한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곳에서는 구원의 시간을 이야기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사람은 내가 왠지 구원 받지 못한 사람 같고 나를 더 불안하게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므로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는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 간 것이다. 요 5:24” 라고 분명하고 확신되게 믿는자의 구원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좀더 확실한 것을 원합니다.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는지 확신할 수 있을까요?

“18세기에 독일의 작가이며 사상가였던 고트홀트 레싱(Gotthold Ephraim Lessing, 1729-1781)이라고 하는 분이 썼던 희곡가운데 현자나탄 이라고 하는 희곡의 내용을 통해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옛날 동방에 한 남자가 살았다. 그는 가치를 따질 수 없는 귀중한 반지 하나를 갖고 있었다. 반지에는 보석이 박혀 있었고, 이 보석반지를 가진 사람은 신과 사람들에게서 사랑을 받는다고 믿었다. 이 남자에게는 세 명의 아들이 있었고, 모두 훌륭한 아들들이었다. 이 남자는 세 명의 아들에게 모두 반지를 물려주고 싶었지만 아쉽게 반지는 하나였다. 이 남자는 고민 끝에 세공사를 찾아가 똑같은 반지 두 개를 더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다. 그리고 세 아들이 서로 모르게 반지를 하나씩 줬다. 아들들은 각기 자신이 아버지가 주신 유일한 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남자가 죽은 후 세 명의 아들 모두에게 반지를 주셨다는 것을 알았고, 어떤 것이 진짜 반지인지를 놓고 다투었다. 결국 그들은 재판관 앞에까지 간다. ‘겸손한 재판관’은 “진짜 반지는 사랑 받게 하는 신통력을 가졌다고 들었다”며 “너희들이 아버지에게서 반지를 각자 받았다고 한다면, 보석이 박힌 반지의 신통력이 그대로 드러나도록 해서 진짜 반지임을 스스로 입증하도록 하라”고 판결한다.

구원받기 이전의 삶이 욕심 사납고, 배타적이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삶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오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일그러진 생명을 온전하게 하고, 깨졌던 그

마음들을 사랑으로 녹여서 하나 되게 하고 더러웠던 삶을 사는 사람이 순수한 삶을 살게 되는 거라고 한다면 내 삶의 지향이 그렇게 바뀌었다면 내가 구원 받은 사람이구나 확신해도 괜찮다는 것 입니다. 확신이 없거든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게 구원 받은 삶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넌 구원 받지 못한 거야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구원 받았는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 구원 받은 사람임을 삶으로 보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속에서 작동한다면 누가 뭐라 그래도 난 구원 받은 사람, 영원한 생명 속에 내가 들어간 거예요. 영생은 시간에 무한한 연장을 살아내는 게 아니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 속의 생명과 접촉을 이루어 사는 오늘의 삶에 영생이 시작하는 것 입니다."

2. 나눔

- 위 글을 읽고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면 서로 나누어 주세요.
→ _____
- 예수를 믿고 내 삶에서 과거와 비교해 달라진 점, 변화된 모습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 _____
- 나는 지금 내 삶에서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고 있나요?
→ _____
- 내가 구원받은 사람임을 보여주는 삶의 모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_____
- 구원받았는지 확신이 서지 않을 때, 나는 무엇이 기대어 믿음을 점검하려 하나요?
→ _____
- 나의 말과 행동, 관계에서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난 순간이 있다면 서로 나누어 주세요.
→ _____
- 내 삶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마음이 더 드러나도록 어떤 작은 실천을 할 수 있을지 서로 나누어 주세요.
→ _____
- 내가 알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과 행위가 함께 드러나는 삶의 모범을 보여줄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지 서로 나누어 주세요.
→ _____

3. 함께 드리는 기도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불러 주시고 구원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다른 사람의 말이나 숫자나 조건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에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욕심과 이기심에서 벗어나 사랑과 순결과 화해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드러나게 해 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